

월요광장



**박석무**  
다산연구소 명예이사장  
우석대 석좌교수

해가 바뀌고 달도 바뀐다. 병오년이 시작되어 달이 바뀌었건만 전쟁은 그치지 않고 있다. 몇 년째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계속되면서 아무런 죄도 없는 선량한 백성들이 수없이 죽어가는 참상을 목격하면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

그곳 말고도 세계의 여러 곳에서는 시도 때도 없이 전쟁은 일어나고 있다. 우주보다도 더 크고 무거운 인간의 목숨이 전쟁이라는 악행으로 무참히 살해당하는 모습을 보면서도 전혀 손 쓸 방도를 찾지 못하는 무력감을 느끼면서 자신의 못남을 한탄할 때가 가장 괴롭고 힘든 시간들이다.

나는 초등학교 2학년 때에 6·25 한국전쟁을 만났었다. 어린 나이여서 전쟁의 참혹함을 제대로 느끼진 못했지만 당시의 분위기로 불안과 공포에 떨던 느낌은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다. 비행기 소리만 들리면 풀을 베다가도 눈독에 의지해 몸을 숨기던 생각은 영원히 잊혀지지 않는다. 전쟁은 그렇게 무서운 인간이 저지르는 가장 큰 죄악이다.

그렇게 큰 죄악이 오늘 같은 문명의 세계에서 사라질 줄을 모르고 끊임없이 계속되고 있다는 데에, 인간은

전쟁만은 절대로 안 된다

로서의 환멸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 이렇게 인간은 바보스럽고 이렇게 인간이 무력하다는 말인가. 정말로 전쟁만은 일어나지 않아야 하는데 오늘 우리나라의 형편은 어떠한가.

윤석열 내란수괴의 수사와 재판을 보면서 모든 죄악에 분노와 절망을 갖지 않을 때가 없으나, 유독 북한을 유인하여 전쟁을 일으켜서라도 계엄의 명분을 찾으려 했다는 보도를 보면서도 심장이 멈추는 충격을 받지 않을 수 없었다. 아니 전쟁을 일으켜서라도 계엄의 명분을 쫓아 정치적 반대 세력을 일거에 척결하고 영구집권을 계획했다는 내용을 확인하면서, 정말로 그들은 인간이기를 포기한 ‘광나니들’임에 치를 떨지 않을 수 없었다.

세상에 그런 짓까지 하려고 했더니 도대체 이들을 인간이라고 말이라도 하겠는가. 세계에서 유일하게 남아 있는 분단국가, 남북이 적대관계로 언제라도 전쟁이 일어날 위험성이 상존하여 어떻게 해서라도 전쟁만은 막고 화해와 평화로 살아가기를 그렇게도 바라는 우리 국민들. 소원이야 통일이지만 당장에 통일이 쉬운 일이 아니라면, 전쟁의 위험에서 벗어나 외교정책이 그렇게도 간절한 우리 국민들의 염원인데 그런 염원에 역행하는 일은 참으로 큰 죄악이다. 절대로 전쟁만은 막아야 한다.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 전쟁을 막으려는 노력에 온 힘을 기울이고 있음을 우리는 역력히 알아볼 수 있다. ‘두 개의 국가’이건, 상호 적대국임을 선언했건, 남한과는 절대로 접촉하지 않는다는 등 온갖 고약한 말이 오고 가더라도 전쟁만은 절대로 막아내는 대북정책을 펴야

한다. 손바닥이 닳도록 빌고 빌어서 북한을 설득하고 아부해서라도 결단코 전쟁은 막아야 한다. 체면이나 위신 같은 것일랑 모두 팽개치고 어떻게 해서라도 대화의 물꼬를 트고 상호 협력과 화해의 분위기를 이끌어내야 한다. 윤석열 정권이 저질렀던 무모한 도박 같은 것에는 사과의 뜻을 전하고 다시는 그런 잘못은 저지르지 않겠다는 굳은 약속을 하고라도 절대로 전쟁은 막아야 한다.

6·25, 수백만의 인명이 죽어갔고 조국 산하가 폐허의 별판으로 변했던 그런 전쟁. 다시는 그런 전쟁은 이 땅에서 사라지는 외교정책을 세워야 한다. “북진 통일이니, 별공 통일이니, 흡수통일이니, 선제공격이니” 등등의 해서는 안 될 구호를 외치며 전쟁도 불사한다던 보수정권 등의 정권 연장 계책에서 우리는 이제 과감하게 벗어나야 한다. 화해와 협력에 의한 평화적 통일 아니고는 절대로 다른 길이 없다. 아무리 공산당이 싫고 북한이 밉더라도 우리의 의지만으로 통일을 달성할 길은 이제 사라졌다. 상호 이해와 협력, 화해와 평화의 결심에서 오는 통일만을 추구하는 정신으로 생각 자체를 바꿔야 한다.

전쟁의 폐해를 딛고 “쓰레기통에서 장미꽃 찾기보다 어렵다”던 민주주의 국가로 변형하고 있는 대한민국, 권력의 영속화 수단으로 일으키는 계엄이나 전쟁만 없다면 우리 국민 모두는 이 나라를 사랑할 것이다. 모든 국민이 나라를 사랑하기 위해서라도 내란 세력을 뿌리 뽑고 전쟁을 영원히 추방한다면 그때는 ‘K-민주주의’, ‘K-문화’로 세계의 으뜸 국가로 도약할 것이 분명하다.

‘보존’의 틀 깨고 ‘메가시티 혁신’으로 가야

지도 이 사안에 대한 논란이 진행 중이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은 선진국인 독일이 이미 30여 년 전부터 행정 경계를 허물고 ‘메가시티급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단일 거버넌스 구축에 사활을 걸었었다는 점이다.

최근 급물살을 타고 있는 광주와 전남의 통합 논의를 보며 다양한 의견들이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대다수가 통합이라는 큰 방향에는 동의하지만 그렇다고 마냥 낙관적인 표정들은 아니다.

대한민국에서 유례없는 길을 가고 있기에 참고할 지표나 모델이 부족한 탓이다. 특히 광주 내 일부에서 지적하는 ‘지역 정체성’과 ‘5·18 광주정신의 고유성’ 훼손에 대한 우려와 보존에 대한 절실함도 충분히 공감한다.

140만 유기체인 광주시의 역사적 무게가 통합 과정에서 희석될지 모른다는 걱정은 당연하다. 특히 ‘동일 생활권, 동일 행정체계’의 원칙은 행정 안정성 측면에서 설득력이 있다.

그러나 21세기는 인류가 경험하지 못한 초변화의 시대다. 세계 경제 흐름은 예측 불가능하며 대한민국은 수도권 일극 체제라는 기형적 구조에 놓여 있다.

우리는 다음 세대를 위해 ‘광주’라는 울타리를 넓혀 글로벌 메가시티 경쟁에 대응할 환경을 조성해야 할 의무가 있다. 그 과정에서 제기되는 ‘광주시 존치 3단계 구조(통합도-광주시-구)’는 경계해야 한다. 이는 기

존의 칸막이 행정을 고착화하고 통합의 핵심 동력인 신속한 의사결정과 자원 배분의 효율성을 저해할 위험이 크다.

지방분권의 핵심은 직제 유지가 아니라 중앙의 권한을 가져와 얼마나 효율적으로 집행하느냐에 있기 때문이다.

광주시를 5개 자치구로 재편해 통합 지자체 직속으로 두는 것은 ‘광주의 해체’가 아니라 광주라는 연진을 전남이라는 광활한 동력원과 직접 연결하는 ‘결합’이다. 이를 통해 광주의 첨단 산업(AI, 모빌리티)과 전남의 자원(에너지, 농생명)이 행정 절차 없이 실시간으로 융합되는 시너지를 기대할 수 있다.

움직이지 않으면 변하는 것은 없다. 광주와 전남이 하나의 운명공동체로 녹아들 때 비로소 우리는 수도권에 대응하는 진정한 ‘남부권 거점’으로 거듭날 수 있다. 광주정신 또한 지리적 경계를 넘어 전남 22개 시·군과 호흡할 때 ‘남도 전체의 가치’로 확산될 것이다.

행정 구역상 명칭이 재편된다고 해서 역사적 위상이 사라지지는 않는다. 오히려 통합 지자체의 ‘심장’으로서 전남 전체의 민주주의와 산업화를 견인하는 더 넓은 플랫폼이 될 것이다. 격변하는 AI 시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과거의 틀을 버리는 ‘보존’인가, 미래 세대를 위한 ‘혁신’인가. 이제는 모두가 이 질문에 답해야 할 때다.

그림 한 점

속히 집도 보였다. 마을은 정겨웠다. 산 너머 먼 곳도 궁금했다. 땅도 파됐고 하늘도 파됐다. 지상과 천상을 잇는 거대한 줄기가 감나무였다.

그런 어느 날 하교하여 집에 오니 어머니께서 울고 계셨다. 내가 얼어서 키우던 아이가 며칠 째 흉영으로 앓고 있던 때였다. 내 등에서 울고 웃던 아이가 별이 되었다니 믿어지지 않았다. 어머니가 우는 바람에 울음을 꼭 참았다. 출연 간다는 말도 없이 별이 되었다는 아이는 아무리 하늘을 봐도 없었다.

우리 집 뒤안 대밭에는 감나무가 있었다. 그 아래 장독대 항아리는 푸른 대나무 빗줄이 반사되어 늘 파란 빛이 났다. 바람도 파랗게 불었다. 간장도 파랬다.

오늘도 감나무 묘목을 몇 주셨다. 해마다 봄이면 고향 집에 심었다. 품종도 개량되어서 맛도 좋고 크다. 하지만 옛날 그 감나무처럼 내 마음은 달래주지는 못했다. 난 늘 허전했다. 그 나무가 보고 싶었다. 어쩌면 별이 된 동생이 보고 싶지는 모른다. 이제 그 감나무는 없다. 도회지로 진화과 임대, 결혼과 취업이 손살같이 지나갔다. 나는 그 나무로부터 벗어나 완전히 다른 사람들, 다른 세계에 있었다. 그 사이 감나무도 사라졌다.

내가 그 나무를 다시 찾은 건 퇴직 무렵이었다. 문득 외로웠다. 그때 그 심목(心木)이 불쑥 내게 다가왔다. 다음날, 시골집 뒤안으로 달려갔다. 감나무가 있던 자리는 흔적도 없었다. 눈부시게 찬مان 하늘은 어디 가고 무심한 하늘만 펼쳐져 있었다. 낮별이 파란 구름 속에서 반짝 빛났다 사라졌다. 그 별이 문득 그리웠다.

지금 난 시골집 마루에 앉아있다. 햇살도 내 곁 마루

에 앉아 조용히 즐기고 있다. 사람은 죽으면 하늘로 간다. 그리고 별이 된다는 걸 안다. 그리운 것들은 모두 하늘로 가서 반짝인다. 지금껏 너무 바빠 살았다. 아니 명에, 금전, 직위를 찾아 헤맸다. 아파트고 자동차고 돈을 찾아 밤낮으로 떠돌았다. 그런데 결국 헛것이었나. 신기루 같은 삶. 지금껏 영혼 없이 살았음을 이제야 안다. 세속의 단맛, 그 공허한 것들만 쫓았다. 무용한 삶이었다. 예나 지금이나 외로울 때 내 곁에 있는 것은 그 신목(信木) 뿐이다.

이제라도 난 나무가 되어 보려 한다. 움직이지 않고, 이 자리에서 앙상한 가지로 있으려고 한다. 그러면 나도 머잖아 별이 될 것이라고 믿는다. 거기서 먼저 아이와 만났으면 좋겠다. 다시 만나도 내 등쪽에 착 달라붙어 “배고프다.”며 또 칭얼거리다 잠들었으면 좋겠다.

박수근의 그림에 공감하는 것은 순전히 그 회비연배경 때문인지 모른다. 어쩌면 그 배경 색깔이 풍경보다 더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다고 여겨진다. 알 듯 모를 듯 희미한 색깔, 그 시절 사람들의 마음을 가장 잘 표현한 색이 아닐까.

누구나 마음 깊이 사랑 나무, 가족 나무, 인생 나무 한 그루씩 지니고 살아간다. 회색빛 박수근의 그림 한 점이 나를 위로해 준다. 우울한 기억을 우울한 색깔로 치유하는 기묘한 힘이 그의 그림에 들어있는 것 같다.

글이든 그림이든 이리 위로를 주어야 좋은 글이고 좋은 그림이다. 배고프다던 아이의 체온이 등으로 느껴진다. 회색빛 그림을 보는 동안, 어느새 내 몸에도 그의 회비연 나무들이 들어와 뿌리를 내린 모양이다.

社說

알맹이 빠진 통합특별법 후속 조치 필요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전남광주통합 특별법안에 대한 지역민들의 반응은 아쉬움이 크다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다. 국회 통과 가능성과 정부 수용성을 고려한 현실적인 타협안이라고 하더라도 재정 특례조항 등 알맹이가 빠진 법안이라는 반응이 많아 후속 조치로 지역의 요구를 어느 정도 반영할지가 과제로 남게 됐다.

지역 정치권이 속고 끝애 마련한 특별법 수정안에는 문화체육관광부 이전 등 파격적인 요구가 담겨 지역민들은 반신반의 속에 조금이나마 기대를 갖고 있었던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지난 30일 발의된 최종안에는 정부 부처 이전 요구는 아예 없고 전남광주특별시의 항구적인 존립 요건인 재정 특례조항조차 빠져 실망감을 안기고 있다. 정부 부처 이전 요구야 현실적인 면에서 힘들다 하더라도 양도소득세의 20%, 부가가치세의 2.2%, 법인세의 2.2% 등 수정안에서 구체적으로 제시한 국세의 지

방세 이전 요구가 아예 빠진 것은 지역 정치권의 용두사미식 대응이 빚은 결과라는 비판을 받을만하다.

목포대와 순천대 통합을 통한 전남권 국립의대 설립 조항이 삭제된 것도 정부의 눈치를 너무 본 것이 아니기라는 지적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물론 2월 한 달간 국회에서 특별법안 통과를 놓고 치열하게 다투는 조율 과정이 남아 있다. 지역 정치권은 희망사항을 담기 보다 통과 가능성을 최우선으로 판단해 법안을 발의했다고 하지만 재정 특례조항과 전남권 국립의대 설립 등 핵심 현안을 반영하지 못한다면 통합특별시 출범 전부터 전락에서 실패했다는 지역 여론에 맞닥뜨릴 우려가 크다.

충남·대전, 대구·경북 행정통합 특별법 안보다 지역 요구를 담아내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지역 정치권은 남은 기간 국회와 정부를 상대로 지역 요구를 최대한 반영하는 성과로 우려를 불식시켜야 할 것이다.

국가가 형평성 지직한 5·18 위자료 판결

정성호 법무부장관이 법원에 5·18민주화운동 피해자들에 대한 정신적 손해배상 위자료를 형평성 있게 산정할 것을 요구한 것은 국가가 책임지고 배상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환영할 일이다.

정 장관은 최근 광주지법에 제출한 의견서에 “5·18 관련 국가배상소송의 위자료 액수 산정에 관해 형평성을 고려한 판단을 해 줄 것을 요청한다”고 명시했다. 5·18 피해자 2명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피고 대한민국의 법률상 대표자 신분으로 의견을 낸 것이 만큼 정부의 의견이나 마찬가지다.

의견서 제출은 5·18 위자료 소송과 관련해 광주 법원과 서울 법원의 판결이 달라 형평성 논란이 빚어진데 따른 것이다. 실제로 5·18 당시 계엄군의 구타로 똑같이 장애 14등급을 받은 피해자가 소송을 냈는데 광주지법은 위자료로 500만원을, 서울지법은 3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해 6배나 차이가 났다. 5·18 피해 사망자

에 대한 위자료도 광주지법은 1억원을 지급하라고 했지만 서울지법은 4억원을 산정해 일도 있었다.

같은 피해에 법원마다 다른 판결이라면 사법부에 대한 신뢰는 무너질 것이다. 정 장관이 5·18 위자료의 형평성 문제를 제기한 것은 이런 차원이다. 그러면서 5·18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 보상으로 국민화합과 민주발전에 이바지하려는 목적이 실현될 수 있도록 위자료 산정과 관련해 형평성 있는 판단을 내려달라고 한 것은 사실상 서울 법원의 판결에 맞춰 위자료 상향을 요구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최근 12·3 내란 및 김진희 관련 재판에서 들쭉날쭉한 판결을 보면서 국민들의 법감정과 다르다는 반응이 많다. 이런 문제를 차단하기 위해 양형 기준이 있지만 재판부에 따라 기준을 크게 벗어나면서 논란이다. 같은 맥락에서 형평성 논란을 빚은 5·18 위자료 판결에 개선을 요구한 것은 의미있는 조치라고 할 것이다.

無等鼓

며칠째 강추위를 동반한 동장군 기세가 만만치 않다. 그럴 만도 한 것이 시기가 대한(大寒)과 입춘(立春) 사이로, 1년 중 가장 기온이 낮은 무렵이 요즘이다. 마지막 절기이자 큰 추위를 뜻하는 대한 추위가 울હે는 푹푹히 이롭잖을 한 걸 보면 과학이 발달한 오늘날에도 ‘절기 과학’은 무시할 수 없는 모양이다.

지구가 태양 돌레를 도는 길을 황도라 한다. 15도씩 돌 때마다 하나의 절기와 조우하게끔 돼 있다. 봄의 시작은 입춘, 여름은 입하, 가을은 입추, 겨울은 입동이라 하는데 계절의 사립일(四立日)이 바로 절기와 달리의 미가 남다르다. 특히 사계절 구분 가운데 입춘은 만물이 소생하고 생명이 움트는 절기로 알려져 있다.

올해 입춘은 모래인 4일이다. 음력으로 설날에 들어가 정월에 들기도 하는데 올해는 음력으로 설날(12월) 열이레(17일)가 입춘이다. 절기상 봄에 들어섰지만 음력으로 아직 12월이라 날씨가 추울 수밖에 없다. 입춘이 다가오면 우리 조상들은 입춘첩(立春帖)을 붙이며 봄 맛을 준비를 했다. ‘입춘대길 건양다경’(立春大吉 建陽多

慶)은 모든 운이 길하고 경사스러운 일이 많기를 바라는 기원이 담겨 있다.

24절기는 명절은 아니지만 그 자체로 의미있는 날이었다. 조선시대에는 사형 집행을 금할 정도로 24절기를 특별하게 생각했다. 특히 봄의 시작인 입춘을 ‘진정한 새해’의 기점으로 봤는데 그날의 기운이 한 해의 모든 운을 좌우한다고 여겼기 때문이다.

올해 입춘은 여느 해보다 특별하다. 지난해 입춘 무렵만 해도 윤석열 내란으로 온 나라가 혼란스러웠다. 봄은 왔지만 봄 같지 않은 ‘춘래불사춘’(春來不似春)의 시절이었다. 윤석열의 무도와 무법, 무지와 무도함이 잉태한 12·3 내란을 극복하기까지 지난한 시간과 인고의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었다. 그러나 끝내 봄은 도래했고 우리는 다시 입춘을 기다리고 있다.

이따면면 조선시대 문인 신홍이 노래했던 ‘매일생한불매향’(梅一生寒不賣香)이라는 구절이 떠오른다. ‘매화는 한평생 추위도 향기를 팔지 않는다’는 그 뜻이 다함없이 다가오는 것은 입춘을 코 앞에 둔 때문인 듯하다. /박성천 문화부장 skypark@



**박용수**  
동신이고 교사·화순문학 편집장

박수근 그림을 보고 있으면 아이를 업던 아련한 추억이 앙상한 나목과 함께 떠오른다. 나목 너머로 울씨년스런 회색빛 배경도 오버랩 된다.

아이가 아이를 보던 시대, 유년의 기억과 그림이 어느 지점에서 만나기 때문일 것이다. 흥영으로 아이를 자주 잃던 때였다. 하교해서 집에 오면 부모님은 일 나가시고 아무도 없었다. 나를 반기는 것은 감나무뿐이었다. 난 책가방을 던져놓고 허겁지겁 뒤안으로 달려갔다. 그리고 쫓르르 감나무에 올라서 우적우적 따먹었다. 그러면 시나브로 감의 단맛이 잉크처럼 온몸으로 번졌다.

나머지 시간은 아이 보는 일이었다. 아이는 배고프다며 자주 울었다. 잠시 아이를 내려놓고 나무에 올라가 감을 따왔다. 그리고 아이 입에 물렸다. 아이는 감을 먹으려고 애플 찌지만 껍질이 두꺼웠는지 뚫었는지 먹질 못했다. 감을 던진 아이는 울다가 지쳤는지 조용했다. 등 뒤를 보면 내 등에 얼굴을 묻고 아이는 씹씩잡이 들어 있었다.

감나무에 올라갔다가 간혹 동네를 구경했다. 멀리 우람한 신목(神木), 단산나무가 보였다. 영심이 집도

光 州 日 報		The Kwangju Ilbo	
회장·발행인 金汝松   논설실장 張必洙 편집국장 崔權一 제작국장 柳濟寬			
1952년 4월 20일 창간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 1(일간)		우) 61482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24	
대표전화 222-8111 / 220-0551(〈지사 지국(구독 신청 배달 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안내		경 영 지 원 국 220-0515 문화사업국 220-0541	
〈대표 FAX 222-4918〉		〈FAX 222-8005〉 〈FAX 222-0195〉	
편 집 부 220-0649	문 화 부 220-0624	기 획 관 리 국 227-9600 업 무 국 220-0551	
정 치 부 220-0634	예 향 부 220-0692	〈FAX 222-0195〉 〈FAX 222-0195〉	
경 제 부 220-0648	여 론 매 체 부 220-0661	디 자 인 실 220-0536 서 울 지 사 02-773-9331	
사 회 부 220-0664	사 진 부 220-0693	〈FAX 02-773-9335〉	
제 2 사 회 부 220-0680	디 지 털 부 220-0697	※구독료 월정 15,000원 1부 800원	
본지는 한국신문윤리위원회의 서약서로서 신문윤리강령을 준수합니다			